

시키보 - 신소재 개발하여 중동으로의 수출 50% 증가 계획

시키보는 중동으로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전년보다도 50%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신소재로서 캐주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키보 고난(江南)에 새로 도입한 설비를 활용한 소재가 잘 팔려, 두바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을 늘리고 있다. 중동으로는 최근 수년 동안 수출이 감소되고 있었는데, 수년전 피크 때의 양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할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시키보는 캐주얼화의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직포·가공의 기간 공장인 시키보 고난에 광폭의 도비(dobby) 직기와 촉감 가공 설비를 도입하였다. 중동으로 수출하려는 소재 “셀그린”은 이제까지 평직의 브로드(broad)가 반을 차지하였었는데, 2006년에는 새로 도입한 설비를 활용한 소재를 새롭게 투입한 것이 잘 팔리고 있다. 새로 생산한 소재의 직물 폭은 62~63in(가공 후 58in)이며, 두툼한 더블 페이스(double face)풍으로 열풍을 막기 위하여 보다 고밀도의 직물 조직이며, 비교적 뽀뽀한 촉감으로 마무리 가공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할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두툼하고 뽀뽀하게 마무리한 소재가 잘 팔리는 두바이로의 소재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소프트하게 마무리한 소재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소재도 좀 두꺼운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키보 고난의 가공 설비는 현재 중동용이나 캐주얼화 방향으로 개발한 소재의 판매가 늘어 풀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으로의 수출을 시작하려는 오사가 텍스타일과는 판매 실적이 셔츠, 스

쿨(학교) 관계, 수출이 1/3씩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3년 내에 수출의 비중을 50%로 올릴 계획이며 중동, 중국, 한국 등에서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2006년에는 한국에서도 약 5년만에 1만m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